

용돈 줄고 생활비는 늘고... 늙어서도 못쉬는 고령층

노동공급 증가에 60세 이상 고용률 2010년 36.2%→2021년 42.9%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7명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사 있다"

갈수록 생활비가 증가하지만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반대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면서 늙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중장년층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70세 이후에도 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은 일할 능력과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형편이어서 사회복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조감청 과장과 이종하 조사역은 지난 31일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노동공급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0~2021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6만8000명이 증가, 전체 취업자수 증가 규모

(324만명)의 82%를 차지했다.

아울러 전체 고용률은 2010년 58.9%에서 2021년 60.5%로 소폭 상승했지만, 고령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36.2%에서 42.9%로 대폭 올랐다.

보고서는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고령층 일자리 질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같은 노동 공급요인이 고령층 고용률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고연령 노동 공급이 늘어나게 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 금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생활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 지목됐다.

2008년에는 고령층의 76%가 평균 251만4000원(연간 기준)을 자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2020년에는 65.2%가 207만1000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

는 데 그쳤다.

반면 2012~2021년 중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식품과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증가, 전체 소비 증가율(7.6%)을 크게 상회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순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아 가계 형편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인당 생활비에서 공적연금의 비율은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와 함께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7명은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지난 8월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65.6%는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은퇴 희망 연령을 묻는 항목에서 46.5%가 70세 이상~75세 미만, 19.1%가 75세 이

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은퇴 희망 평균 연령은 69.4세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장년들이 경제 사정고 노후 준비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72.5%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구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53.1%는 권고사직· 명예퇴직·정리해고·계약종료, 11.7%는 사업 부진·폐업 때문에 구직 중이라고 답했다.

구직자의 36.8%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중장년 구직자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및 개인용돈, 자녀 교육비 마련 등 경제적 사정(49.5%)이 가장 많았다. 일하는 즐거움(22.2%), 건강 유지(11.3%) 등이 뒤를 이었다.

재취업 시 희망하는 임금을 평균 내년 월 27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 보면 200만~250만원이 32.3%로 가장 많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두환 미납 추징금 검찰, 20억 추가 환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 31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52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A신탁사에 맡겼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이를 압류했다.

그러자 A사는 2018년 7월 해당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추징금 집행은 미뤄졌다.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의뢰를 통해 해당 임야는 공매에 부쳐졌고,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분배됐다. 다만 A사가 제기한 소송 때문에 지급이 보류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연합뉴스

"완전 새 변이 안생기면 내년 봄 실내마스크 해제"

정기적 감염병대응자문위원장

방역당국이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년 봄이면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적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31일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7차 유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BQ.1, BQ.1.1 변이도 결국에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5의 일종이라면서 현재 도입됐거나 도입 예정인 개량백신, 파스르비드 등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력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7차 유행과 관련해선 아직 7차 유행 또는 겨울 재유행의 초기 단계 진입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증가세가 계속 올라가면 7차 유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올라갈지, 빨리 올라갈지,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정체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5차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력이 11월이면 다 떨어질 것이고, 이후 계속 올라가든, 조금 멈춰서다가(11월)중순이나 12월 초에 올라가든 증가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갑작스럽게 올라가지 않고, 정점 규모도 너무 크지 않게 '속도와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위험자는 동절기 백신은 꼭 맞고, 전국 의료기관은 치료제 처방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진표 기자 lucky@



'찰밥데이' 아시나요 31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구청 현관에서 '찰밥데이' 홍보를 위한 후원 바자회를 열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인도서 보행자용 다리 붕괴 참사... "130여명 사망"

인도 서부에서 30일(현지시간) 축제 인파가 몰린 보행자 전용 현수교가 무너져 최소 130명이 숨졌다고 NDTV 등 인도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저녁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州) 모르비 지역 마추강을 가로지르는 현수교가 붕괴해 다리 위에서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강으로 추락했다.

당시 다리 위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500여명이 올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일몰 직후 현수교를 지행하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수초 만에 다리가 무너졌고,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강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사망자 수는 30여명으로 알려졌다. 익사한 시신 등이 수습되면서 희생자가 크게 늘어난다고 있다.

NDTV는 구조 당국을 인용해 이번 사고로 130명이 숨졌고 177명이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수색이 진행 중이라 사상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리 밑으로 떨어진 이들 중 일부는 해염처리 나왔고, 일부는 케이블 등 다리 잔해를 붙잡고 강둑으로 기어 올라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사고가 난 다리는 길이 233m, 폭 1.25m의 보행자 전용으로 영국 식민지 시대인 1880년에 개통된 낡은 다리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촬영 탐지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공대 연구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연구팀이 불법 촬영을 스마트폰 앱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저명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에너지공대는 노영태 교수 연구팀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이의진 교수가 공동 연구를 통해 이른바 '스파이 카메라'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 개발사업과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으로 이뤄졌다.

'스파이 카메라'는 반도체 직접도 기술의 발달로 작은 크기의 근거리무선망(와이파이)을 사용해 클라우드로 영상정보를 송출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탐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노 교수는 무선신호의 채널상태정보(CSI)가 움직이는 물체가 존재할 때 변동이 있다는 것에 착안해 해결 방법을 고안했다.

근거리무선망 카메라는 비디오를 전송할 때 비디오 압축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으면 무선신호의 전송량이 변동된다. 이러한 무선비디오 전송의 특징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만으로 도스파이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연구팀은 화장실과 탈의 공간 등에서 실험해보니 큰 움직임뿐만 아니라 작은 행동에도 견고한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성과는 지난달 11~1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인 ACM Ubicomp 2022에서 발표된 뒤 논문이 온라인 게재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h2>장성토지 매매 (분양)</h2>	<h2>경매교육 [기초반]</h2>								
<p>▶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p> <p>▶ 공기최고(축사없음), 소나무 숲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p> <p>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010-6670-9800</p>	<p style="text-align: center;">*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style="text-align: center;">▶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3억4천</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td> </tr> <tr> <td>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td> </tr> <tr> <td>서구 매월동 (임야) ▶ 감정가 6억2,700 → 최저가 2억2천</td> </tr> <tr> <td>북구 신안동 (공정)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td> </tr> <tr> <td>서구 매월동 (빌라)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td> </tr> <tr> <td>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td> </tr> <tr> <td>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010-2614-9801</p>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3억4천	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	서구 매월동 (임야) ▶ 감정가 6억2,700 → 최저가 2억2천	북구 신안동 (공정)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	서구 매월동 (빌라)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3억4천									
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									
서구 매월동 (임야) ▶ 감정가 6억2,700 → 최저가 2억2천									
북구 신안동 (공정)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									
서구 매월동 (빌라)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